

국어 통합형 출제... 수학 출제범위 재수생 불리

전문가 "6월 2일 모의평가 통한 난이도 대응 필요"

2017 수능 계획 분석

“한국사가 필수 응시 과목으로 바뀌고 수준별 시험으로 치러졌던 국어가 공통 시험으로 치러지며 수학은 출제 범위가 달라진다.”

입시 전문가들이 꼽는 2017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의 가장 큰 변화다.

◇한국사 필수...수험생 부담은 특히 한국사의 경우 모든 수험생들에게 필수

응시 과목에 따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라는 교육부 발표와 대학별 수시·정시 반영 방법 등을 종합할 경우 입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입시 현장의 관측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

담은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사 시험은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치러지며 문항 수는 20개, 만점은 50점이다. 상대평가에 따른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제공하는 다른 과목과 달리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1~9)만을 제공한다.

40점 이상을 맞으면 1등급, 등급을 나누는 원점수는 40점을 기준으로 5점씩 낮아진다.

◇국어는 공통으로, 수학은 출제 범위 달라져...수험생들의 경우 기존 A/B형 수준별 시험으로 치러졌던 국어가 공통 시험으로 바뀌는 데 따른 유틸리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 분석이다.

기술지문의 경우 이과생이 응시하는 A형에만 출제됐던 점, 중세 국어는 문과생이 응시하는 B형에 출제된 점 등을 들어 공통 시험으로 치러지면서 계열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일단, 교육과정평가원측은 “올해 수능의 목표는 어떠한 계열의 학생이건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평가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반응을 탐색해 본 수능 때 어떤 지문이 나와도 학생들의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2013학년도 통합형 수능 때 국어 영역에서 1등급 이내 구간에 이과 학생이 문과 학생보다 많았던 점, 45 문항 중 과학 지문이 차지하는 비중(3~4 문항) 등을 들어 이과 학생들이 다소 유리하지 않겠냐는 예측도 현장에서 나오고

2017학년도 수능시험 일정

주요업무	추진일정
시행기본계획 발표	3월29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7월11일
원서교부, 접수 및 변경	8월25일~9월9일
시험 실시	11월17일
문제 및 정답 의의신청	11월17~21일
정답 확정	11월28일
채점	11월18일~12월7일
성적 통지	12월7일

있다.

수학은 출제 범위 변화가 크다. 인문계 수험생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나형의 경우 출제범위가 수학II와 미적분I, 확률과 통계로, 기존 수학 A형에서 집합과 명제, 함수가 추가된 반면, 행렬, 지수, 로그 함수는 삭제됐다. 자연계 수험생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가형의 경우 미적분II,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에서 출제되며 수학 B형에서 다뤘던행렬, 일차변환 등이 삭제된다. 졸업생 응시생들의 경우 추가로 영역이 생긴 만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모의평가를 통해 난이도를 관찰하고 계획을 변경하는 등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7월 중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봄이 활짝 피었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29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광주천변에 노란 개나리가 만개해 산책하는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29일 '무등산국립공원 서석대 정상부'의 탐방객 이용행태 분석 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보면, 서석대 정상부의 시설 점검 수용력(1일)은 797명인데도 하루 평균 1192명의 탐방객이 찾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음주·난폭운전 사망사고 가중처벌

대법원 양형기준 심의...징역 최고 4년6개월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을 받아 최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게 된다. 기존 교통사고 치사죄 형량보다 1년6개월이 늘어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8일 제7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5월15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된다.

양형위는 교통범죄 사건에서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특별양형인자에 추가해 가중 요소로 참작하도록 했다.

음주·난폭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징역 4년6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치사죄의 권고 형량은 징역 3년까지인데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상한의 2분의1까지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양형기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의 단서, 즉 '11대 중과실' 중 위법성이 무거운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했다. 11대 중과실은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이다.

음주운전이 11대 중과실에서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분리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또다른 중과실이 합쳐진 경우도 권고 상한의 2분의1까지 가중해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난폭운전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특별가중인자로 추가됐다.

양형위는 난폭운전 자체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음주운전에 대한 평가를 새 기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2 해질 18:52 달 뜨기 10:33 달 지기 10:33

포근한 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9/22	보성	맑음	5/20
목포	맑음	7/19	순천	맑음	9/21
여수	맑음	10/17	영광	맑음	6/21
나주	맑음	7/23	진도	맑음	6/20
완도	맑음	8/22	전주	맑음	6/20
구례	맑음	6/22	군산	맑음	5/17
강진	맑음	7/23	남원	맑음	6/20
해남	맑음	6/22	홍산도	맑음	7/13
장성	맑음	6/22			



바다 날씨

지역	방향	파고(m)	
		오전	오후
서해	남바다	북동~동 0.5~1.0	동~남동 0.5~1.0
	남바다	북동~동 1.0~2.0	동~남동 0.5~1.5
남해	남바다(동)	남서~서 0.5~1.5	남~남서 0.5~1.0
	남바다(서)	남서~서 1.0~2.5	남~남서 0.5~1.5

생활지수

주요	식중독
보통	자외선
낮음	피부질환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6:06	11:18
	18:09	23:24
여수	00:39	06:48
	12:48	18:49

주간 날씨

31(목)	4/1(금)	2(토)	3(일)	4(월)	5(화)	6(수)
10/18	11/19	8/20	11/16	7/17	8/18	8/19

“서석대 인파 몰려 훼손 가속”

무등산국립공원 연구 용역...탐방예약제 필요

입석대와 함께 천연기념물(465호)로 지정된 무등산의 명물 서석대가 몰려드는 인파로 훼손이 가속화돼 탐방예약제 등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적정 탐방인원을 웃도는 탐방객이 연중 찾아들어 출입이 금지된 역사마을 등에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식물자원 훼손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주상절리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서석대에 탐방객이 집중되는 이유는 군부대가 주둔 중인 천왕봉 등 정상부를 제외하면 서석대가 사실상 무등산 최고봉(1100m)인데다 광주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망 포인트가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29일 '무등산국립공원 서석대 정상부의 탐방객 이용행태 분석 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보면, 서석대 정상부의 시설 점검 수용력(1일)은 797명인데도 하루 평균 1192명의 탐방객이 찾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석대 정상부에 탐방이 허용된 공간(테크시설·738㎡), 서석대 주변 법정 탐방로 면적(2453㎡)을 감안해 도출된 적정 탐방 인원은 1.5배 이상의 인원이

찾아드는 탐방객 집중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적정 인원을 웃도는 초박한 탐방객 방문이 지속되다 보니 출입 제한 구역과 허용 공간의 벽이 허물어지게 됐고 이는 결국 서석대 주변 역사, 산철쭉 등 식물자원 훼손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서석대 정상부 탐방객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주변 식물자원 훼손을 넘어 정상부 아래를 떠받치듯 지탱하는 주상절리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용역을 수행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수많은 탐방객이 역사 등 식물군을 끊임없이 밟아 살 수 없게 만들고 암석 위로 쌓인 흙마저 비바람으로 날아가면 서석대 주상절리를 비롯한 암석의 맨 얼굴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의뢰를 받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2월까지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들은 서석대 보호를 위해 단기 대책으로 탐방객 홍보 강화, 훼손 여부 정기 모니터링, 탐방 허용공간과 제한구역 명목화 하는 정비공사를 제안했다. 장기 대책으로는 서석대 정상부 탐방예약제 및 탐방객 제한, 서석대 정상부를 우회하는 탐방로 개설 등을 꼽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동식 한옥 사랑채

사랑채, 힐링하우스, 한옥펜션, 이동식주택, 도시옥상 휴식공간이나 민박, 농가주택, 찜질방, 이동식 화장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전통한옥을 집묵한 원목위주의 친환경 자재와 철구조로 이루어진 내진설계 내화판넬을 이용한 우수한 단열효과 및 화재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시스템한옥

단열걱정 NO! 소음걱정 NO! 화재걱정 NO!

내부 한옥은 특허 단열창 서까래 및 부연 화장실

기본옵션 | 화장실, 싱크대, 신발장, 바닥난방

www.뒤틀마루.com 이동식 한옥 전문기업

조승학유성 061-461-1800 H. 010-3631-0372

새 주인을 찾습니다

아름다운 펜션 크리에이티브

70~80년된 벚꽃,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잡종지 15,688㎡ (4746평) 전 1,985㎡ (600평) 총 5,346평

편도 1차선 지방도 20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IC 15분/문평IC 5분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금액 24억 현지 답사 후 조정

H. 010-3119-6952